

김정은은 왜 ‘스포츠’에 몰두할까?

홍성보
(북한대학원대 박사)

김정은이 후계자가 된 2011년 북한은 ‘체육강국’을 표방했다. 북한의 체육관계자들이 총집결한 ‘선군체육열성자회의’도 개최했다. 2012년 가을에는 당시 실세로 불리던 장성택을 위원장으로 당·정·군을 포괄하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군인 건설자들이 마식령 스키장을 1년여 만에 완공했다.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으며, 2015년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를 열어 체육강국을 위한 ‘체육의 과학화’를 강조했다. 2016년 리우올림픽에 이어 2018년 2월 남한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도 참가했다. 이처럼 북한권력이 스포츠에 몰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강대국과의 갈등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신기루 같은 스포츠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핵무력, 체육강국, 과학화

2018년 2월초 북한과 남한에서는 두 가지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하나는 2월 8일 오전 평양에서 진행된 건군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이고, 다른 하나는 9일 밤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이다. 앞선 열병식에서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화성-15형 등 최신훈 무기와 5만여명의 행진대열로 군사력을 과시했으며, 뒤이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에서는 남북의 선수단이 함께 평화를 상징하는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입장해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열병식과 개막식 장면은 북한의 일관된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상징한다. 그것은 ‘핵무력 완성’과 ‘체육강국 건설’에 대한 구상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은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되었다. 1998년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건설, 중공업과 자립민족경제 노선을 계승하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역점을 두자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2011년에 본격화된 ‘체육강국 건설’ 구상은 국제 스포츠경기에서 금메달을 많이 따서 국가위신을 높이고 인민의 자긍심을 이끌어 내자는 것이다. 북한권력으로서의 열병식과 개막식이 전쟁과 평화로 상징되는 핵무력과 체육강국을 위한 이중주인 셈이다. 핵무기를 위시한 비대칭 전략자산으로 유사시에 대비하면서,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절박감이 배어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러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취하고 있을까?

북한권력은 이 두 가지 목표의 출발점을 과학기술로부터 찾고 있는 듯하다. 잘 알려진 대로,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은 김정일 시대인 1999년에 전국과학기술자대회를 8년 만에 개최하는 것으로부터 본격화된다. 2008년에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2012년에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를 위한 3대 기둥으로 ‘과학기술, 사상, 총대’를 제시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과학기술은 북한의 모든 사업, 모든 부문에서 우선시되는

과제이다. 스포츠 부문에서도 과학화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2002년 전국체육부문 과학자대회에 이어 2006년 체육부문 과학기술일군회의, 2008년 전국체육과학토론회, 2011년 체육프로그램 전시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속에서 '체육의 과학화'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 북한정권이 '로켓, 핵, 월드컵'을 기적이자 사변으로 설명한 것처럼, 북한은 월드컵 등 국제경기에서의 금메달 획득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현대 스포츠는 최첨단 과학기술이 구현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권력이 핵무기와 로켓(미사일) 등 비대칭전략에 집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부문에서도 다양한 종목의 균형 있는 발전보다는 축구와 태권도 등 승산이 있는 종목 육성에 국가자원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체육강국 건설사업을 총괄하는 곳은 '국가체육지도위원회'이다. 당·정·군의 체육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012년에 설립된 상설국가기구이다. 위원장은 당시 실세로 불리던 장성택 이후 최룡해를 거쳐 최 휘가 맡고 있다. 체육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육시설이 급선무였다. 기존 시설은 대부분 1989년 평양축전 당시 건설되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했다. 핵심선수의 선발과 훈련, 우승이 가능한 종목의 기술개발, 기자재 구비 및 선수단 운영, 식료품 지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문에서 이뤄지는 체육사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기존의 체육성과는 별도로 당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내세웠다. 체육사업에 필요한 예산, 인력, 기술, 선수, 지원, 건설, 지도 등을 총괄해서 국가권력의 의도대로 체육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출범을 전후로 하여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체육시설은 평양을 중심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인다. 2011년 인민군 종합체육관,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등을 시작으로, 2013년 마식령 스키장을 비롯해 룡라인민공원, 5.1경기장, 평양체육관,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장을 완성했으며, 2014년 송도원국제야영소, 체육촌 정비 등을 마치고, 2016년 평양체육기자재공장 건설 등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적 지도체계와 정비된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북한의 스포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김정은 시대 북한체육의 핵심종목 변화

2015년 3월 김정은은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체육강국 건설의 구상을 밝혔다. 그는 먼저 체육강국이 "전체 군대와 인민을 국방과 로동에 튼튼히 준비시켜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고 사회주의 경제강국, 문명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주체조선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그 첫째 목표가 "국제경기들에서 패권을 쥐는데"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조선사람의 체질적 특성에 맞고 지난 시기 국제경기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전통이 있는 체육종목들을 승산종목으로 정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도록 했다. 김정은은 특히 체육의 과학화가 체육강국 건설에서 승리의 열쇠라고 말하면서, 북한식으로 발전시키되 당이

중시하는 종목(승산종목)의 기술을 우선적으로 연구하도록 했다.

이 김정은 서한은 이때까지 북한체육의 기본 방침이 되었던 1986년 김정일 담화 내용을 보완한 것이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두 문건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그리고 김정은 시대로의 본격적인 진행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북한체육의 기본 방향과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이들 문건의 내용 가운데 핵심종목(승산종목)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난다.

첫째, 2015년 김정은은 성과를 중심으로 핵심종목을 선정했다. 체질적 특성에 맞고 국제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종목을 승산종목으로 설명하면서, 국제경기 우승 종목인 여자축구, 마라톤(마라톤), 럭기(역도), 권투, 탁구, 레슬링(레슬링), 유술(유도), 기계체조, 활쏘기(양궁)와 함께 민족체육인 태권도와 씨름 종목을 강조했다. 둘째, 2015년 김정은은 격투와 민족체육 종목을 강화했다. 특히 ‘온 나라를 태권도화’하고 태권도의 기상을 세계에 떨치라고 주문했다. 태권도와 씨름은 활쏘기와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민족체육 종목이어서 북한이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남북교류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셋째, 2015년 김정은은 강제종목을 세부경기로 구체화했다. 북한의 전통적인 강제 종목은 축구, 마라톤(마라톤), 럭기(역도), 권투, 레슬링(레슬링) 등이다. 1986년 김정일은 가장 인기가 있고 대중화된 축구를 발전시키라고만 했지만, 김정은은 그 가운데 여자축구에 집중하도록 했다. 넷째, 2015년 김정은은 수령의 계승성과 영도력을 강조했다. 김정은은 체육인들에게 강조한 ‘빨찌산(빨치산)식 공격전법’이 1986년 김정일이 제시한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대 수령의 유지를 계승하면서 김정은식의 영도력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1> 2015년, 1986년 북한의 핵심종목 비교

		2015		1986	
속		마라톤, 역도, 권투, 레슬링, 탁구, 양궁		마라톤, 축구, 탁구, 권투, 레슬링, 역도, 양궁	
변화		유도, 기계체조, 태권도		여자배구, 사격, 낙하산/항공/통신, 예술체조, 수영	
구분*	I.국방체육	양궁	1	양궁, 사격, 낙하산/항공/통신	5
	II.민족체육	태권도	1		0
	III.구기	여자축구, 탁구	2	축구, 탁구, 여자배구	3
	IV.격투	권투, 레슬링, 유도	3	권투, 레슬링	2
	V.육상/체조/역도	마라톤, 기계체조, 역도	3	마라톤, 예술체조, 역도	3
	VI.수영해양		0		0
	VII.겨울체육		0		0
	VIII.기타체육		0		0
배경		김정은, 체육강국 축구강국 선언		김정일, 남북 스포츠 대결 시기	

* 출처: 광명백과사전 20권. 94-141, 203-776쪽.

특히 김정은 시대에 태권도가 핵심종목으로 선정된 이유는 국제경기에서 거둔 괄목할만한 성과와 함께 민족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성에서 찾을 수 있다. 1991년 이후 20여년 간 북한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거둔 메달은 다른 종목 평균(16.33개) 보다 17배(271개)나 많았다. 태권도 종목의 이러한 성과는 2015년 김정은이 ‘온 나라를 태권도화’하도록 한 주요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권도 종목이 북한의 주요 정치행사와 연계되어 활용되는 점도 또 다른 이유로 볼 수 있다. 제8차(1992년), 제17차(2011년), 제20차(2017년), 국제태권도연맹(ITF)의 세계선수권대회가 평양에서 개최된 경우이다. 1992년은 북한권력이 김일성에서 김정일(최고사령관/국방위원장)로 급속히 재편되는 시기, 2011년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최고권력(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최고사령관)이 이양되는 시기, 2017년은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

< 2> 북한의 주요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성과 (1991~2013년)

태권도			여자축구			탁구			권투			레슬링			유술			륙상			체조			력기					
금	은	동	금	은	동	금	은	동	금	은	동	금	은	동	금	은	동	금	은	동	금	은	동	금	은	동			
4	6	4	188	46	37	3	1	0	14	11	4	7	3	4	2	1	1	7	2	2	1	0	0	7	5	2	10	25	21
14			271			4			29			14			4			11			1			14			56		

수령을 상징하는 경기대회

국제적인 고립과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북한은 90년대 이후 다수의 경기대회를 신설했다. 당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급속히 붕괴되자 1989년부터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표방하던 시기였다. 북한은 특히 태권도 종목에 집중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태권도 경기 보급에 열중했다. 경기대회 명칭도 수령을 상징하도록 해서 자연스럽게 태권도와 수령의 관계를 부각시켰다. 이 가운데 하나가 김일성을 상징하는 ‘9월10일상’ 대회이다. 1992년 9월 10일 태권도전당 개관식에서 김일성이 태권도를 과학화하고 생활화하도록 말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김일성을 상징하는 명칭은 ‘9월10일’ 이외에도 ‘만경대’가 있다. 여기에 속하는 태권도 경기대회는 1998년 제1차 9월10일상 국제태권도경기대회로부터, 2006년에 시작된 9월10일상 전국태권도종합경기, 2014년부터 만경대상 전국무도선수권대회로 이어지고 있다. 김정일을 상징하는 명칭에는 ‘백두산, 정일봉, 장자산, 선군’ 등 다양하다. 김정은 시대에는 김정일 시대에 시작한 ‘전승컵’ 경기에 태권도강자 경기를 신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 제1차로 시작한 전승컵 전국태권도강자 경기대회이다. 이 대회 명칭의 의미는, 선대 수령의 선군사상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전승컵’을, 체육강국 건설을 강조하는 목적에서 ‘강자’를, 체육강국 건설의 모범 사례인 ‘태권도’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매년 4월 만경대상 전국무도선수권대회에 이어, 6월 정일봉상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7월 전승컵 전국태권도강자경기가 차례로 열리고 있다. 그런 가

운데 김정은 시대 이후에 태권도와 더불어 축구, 스키 등 일반 스포츠 종목의 경기와 함께, 전국도대항 군중체육대회나 보건부문체육경기, 노동자체육경기 등 인민대중을 위한 체육경기대회를 다수 신설하였으며, 축구올림픽체조, 농구올림픽체조, 레슬링올림픽체조를 만들어 선수들의 훈련 프로그램으로 보급하고 있다.

한편 국내경기대회와 별도로 북한이 매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국제경기대회는 김일성을 기리는 만경대상 국제마라톤(마라톤)경기와 김정일을 상징하는 백두산상 국제휘거(피겨)축전이 대표적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향후 김정은을 상징하는 국제경기대회가 신설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김정은의 고향으로 알려진 원산지역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의 스키훈련장으로 활용된 마식령 스키장이 김정은과 연고가 깊은 원산 부근에 있으며, 마식령 스키장을 건설한 군인 건설자들이 완공한 송도원 국제야영소도 원산지역에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북한은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을 개최했다.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에서는 군용과 민간의 항공기 비행술과 낙하산 강하 시범과 함께 모형항공기 조종비행(드론경기) 경기가 진행되었는데, 이들 항공체육은 김정은이 주장하는 우주강국의 이미지와도 부합되고 있다. 이들 행사에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관광발전 토론회와 금강산, 마식령지구 관광사업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원산 인근의 갈마지구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겠다는 북한당국의 계획이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3> 북한의 신설 체육경기행사 현황

도	체육경기행사	목
1992	제1차 전국청소년 태권도경기대회 폐막, 11월 17일	태권도
1993	제1차 조선인민군 체육선수단 종합경기대회, 6월	종합
	제1차 청소년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태권도
1994	제1차 조선인민군 일당백상 체육경기대회’ 개막, 6월 14일	종합
1995	제1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꾼 체육대회, 3월 13-20일	종합
	제1차 정일봉상 장자산상 체육경기대회, 10월	종합
	제1차 정일봉상 장자산상 전국청소년학생 태권도경기대회(개칭)	태권도
1996	제1차 백두산상 시급기관일꾼 체육대회	종합
	제1차 전국청년학생들의 8.28 청년컵쟁탈 농구경기대회	농구
1997	제1차 오산덕상 체육경기대회 개막, 12월 23일	종합
1998	제1차 정일봉상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3월 25-28일	태권도
	제1차 9월10일상 국제태권도경기대회, 9월 10-12일	태권도
	제1차 전국노동자체육경기대회, 9월	종합
2000	제1차 아시아 태권도선수권대회, 10월 21-22일	태권도
2002	제1차 대항소상 전국근로자 텔레비전 민속씨름경기, 6월 13-15일	씨름
2004	제1차 국제무도경기대회 평양에서 개막식, 9월 15일	무도태권
	제1차 노장태권도선수권대회	태권도
2005	제1차 세계여자권투협회(WBCF) 선수권대회 평양, 6월 28일	권투
2006	제1차 9월10일상 전국태권도종합경기대회, 9월 29일-10월 5일	태권도

2012	1차 전국어린이바둑경기	
2013	제1차 전승컵 전국태권도강자경기대회 개막, 7월 23일	태권도
	제1차 보건부문체육경기	종합
2014	제1차 전국소년축구경기	축구
2015	전국 도(都) 대항 군중체육대회-2015	종합
2016	선군절 기념 전국노동자체육경기	종합
	원산 국제친선항공축전-2016	항공체육
	마식령스키경기-2016	스키

북한 스포츠의 도전

김정은 시대 북한스포츠의 또 다른 변화는 민족체육을 비물질문화유산(남한의 무형문화재)으로 보호하는 점이다. 씨름과 태권도, 활쏘기, 바둑 종목이 대표적이다. 북한은 2009년 수정 보충된 ‘문화유물보호법’과 이 법에 기초하여 2012년에 제정된 ‘문화유산보호법’을 다시 2015년에 폐기하고 ‘민족유산보호법’으로 발표했다.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 결정으로 “민족유산을 더 잘 보호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튼튼한 법적 담보가 마련”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2014년 김정은은 김정일의 단군릉 현지도 20주년에 전달한 문헌을 통해, 민족유산을 잘 발굴 보존하고 우수한 유산들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도록 하며, 국제 학술교류도 많이 준비하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남한에서도 2015년 3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발전·활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형문화재법’을 제정하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및 남북의 무형문화유산 교류를 위한 법제도적 조건을 마련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동북공정을 계기로 북한의 체육부문에서는 민족체육을 중시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9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육성한 태권도 종목과 함께, 인민들의 전통놀이인 씨름경기, 그리고 바둑경기대회도 새로 개최했다. 북한은 특히 2012년에 제정한 ‘문화유산보호법’에 근거하여 태권도 종목을 아리랑, 김장, 씨름, 막걸리담기 등과 함께 25개의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2015년에는 씨름 종목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신청했다. 2017년에는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무예도보통지의 전통이 북한의 태권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북한이 태권도 종목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태권도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경쟁은 태권도가 지니고 있는 상징성과 태권도의 국제적인 파급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남북 간의 문화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남북 공동 등재를 준비하는 등의 지혜가 필요하다.

스포츠는 북한이 강대국과 겨뤄서 쉽게 성과를 내보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축구, 태권도, 사격, 권투, 역도 등 승산이 있는 종목들이 집중 육성되고 있으며, 선수들에게는 특히 유일사상과 군대정신이 승패의 관건으로 강조되고 있다. 국제경기 우승은 최고지도자의 리더십으로 포장된다. 북한 청년 대부분이 군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좋아하는 스포츠경기는 사상교양과 육체교양의 좋은 수단이다. 스포츠는 북한의 국가전략에서 주요 동력이기도 하다.

지금의 김정은이 경제-핵무력을 주장하는 것처럼, 60년대 김일성은 강대국들과의 관계 변화 속에서 국방-경제 노선을 표방했다. 70~80년대 김정일에 의해 주체적인 사상과 기술을 강조했다가,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군대가 앞장서는 선군정치로 선회했다. 그러는 동안 북한의 체육사업은 시대별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운용 차원에서, 국방체육을 위주로 하는 대중체육으로, 주체적인 체육의 기술과 사상으로, 군대가 앞장서는 선군체육의 방식 등으로 호명되어 왔다. 2010년대 북한스포츠는 김정은의 핵무력 완성과 체육강국 건설의 구상 속에서 '체육의 과학화'라는 또 다른 변화의 길목에 들어서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스포츠는 국내외의 험난한 파도를 넘어 너른 바다로 순항을 할 수 있을까?

